

수원시
평생학습관

No.1801



공부모임은
시민이 스스로 움직이고
서로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공부모임

책, 사람, 세상이 연결되는
이야기 마당을 소개합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공부모임

책, 사람, 세상이 연결되는
이야기 마당을 소개합니다

공부모임이란?

책, 사람, 세상의 연결고리 04

한 눈에 보는 공부모임

내용으로 보기 06

주제로 보기 08

특색으로 보기 10

연대기로 보기 12

공부모임 소개

공부하는 주부들 공주 14

글항아리 안다미로 17

기린대화 기대 20

니체와 별별이야기 22

동화읽는어른 24

수요미식(美識)회 26

시사클럽 28

시집통째읽기 30

심리학 독서모임 마음발 33

쓸모 36



어린왕자 38

여성주의 공부모임 눈길 40

영화수다 42

오독오독 44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46

장독 48

정다운우리 51

헤어졌니 53

그리고 유투공 55

공부모임 운영시간표 58

공부모임 참여하기

공부모임 참여 방법 60

새로운 모임 만들기 62



책, 사람, 세상의 연결고리

수원시평생학습관 공부모임은 가르치는 강사 없이 시민들이 모여서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선정하고 읽고 토론하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시민인문학교 강좌를 수강한 시민들의 후속 모임,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시민이 제안한 모임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고고장에 모여 앉아 관심 주제를 참여자가 서로 공유하고, 읽을 책을 정하는 즐거운 과정으로 시작해 책 이야기,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 인생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1년 공부 계획을 세우는 모임, 매주 모임 때 마다 읽을 책을 정하는 모임, 책 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는 모임 등 다양합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와서 이야기 나누는 모임, 한 챕터씩 읽고 와 적은 분량을 깊게 토론하는 모임, 책을 전혀 읽고 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임 등 공부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모임이 한 회, 두 회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각자 간식을 챙겨와 나눠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모임이 끝나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십니다. 미술관, 박물관, 서점, 동네 카페 등의 다른 공간에서 만나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공부할 수 있는 동네 벗을 공부모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공부모임 활동 공유회 <동네 북book소리>도 열립니다. 책으로 맺어진 동네 벗들과 한 자리에 모여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공부모임에서라면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읽기 힘든 책을 같이 읽으며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내용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읽어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인상 깊게 읽은 밑줄 그은 구절을 공유하고, 저자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과감하게 드러내며 비판적으로 읽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책 속에 담긴 의미를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더 깊은 책 읽기와 삶 읽기가 가능합니다.

동네 벗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며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시민들의 공부모임에 초대합니다.



공부하는 주부들 공주

2017년 북큐레이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시민 제안으로 시작한 모임. 「책은 도끼다」에 나온 책을 순차적으로 읽었습니다. 관련 영화도 보며, 같이 배우고 깨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글향아리 안다미로

2015년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 후속 모임으로 시작해, 글감을 정해서 글을 쓰고 합평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정해서 토론하며 읽고 쓰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린 대화 기대

2017년 가을 <아이가 대화하고 싶어하는 부모 되기> 강좌 후속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며, 자녀, 부부, 친구 등 다른 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니체와 별별이야기

2016년 <다이너마이트 니체> 강좌 이후 생킨 모임으로, 니체 관련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니체를 통해 진하게 웃고 얘기하고, 우리의 소소한 별별 일도 탐구하는 모임입니다.

동화읽는어른

어린이도서연구회 회보인 '동화읽는어른' 읽기 모임으로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동화와 그림책을 함께 읽고, 최근에는 고전다시읽기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어린이문학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수요미식(味識)회

2017년 봄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자로> 강좌 후속모임으로 시작해, 정치, 사회, 문화 관련 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알아가는 것을 맛보는 수요일 모임입니다.

시사클럽

시사인, 녹색평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등 사회간행물을 읽는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는 사회의 핫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집통째읽기

2015년 가을, 시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서 시집 한 권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고 느낌을 공유하는 시집통째읽기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시를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가꾸어 나갑니다.

심리학 독서모임 마음밭

2017년 봄 <내 마음 읽기> 강좌 후속 모임. 여성 심리를 중심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눕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며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소통하려 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쓸모

먹고 마시고 행복하기 위한, 내 삶의 쓸모를 위한 삶의 기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자유 대화와 질문이 있는 대화, 오픈 테이블 방식 등으로 모임이 진행됩니다.

어린왕자

2014년 어린왕자 원서 「The Little Prince」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어 원서를 읽고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여성주의 공부모임 눈길

2016년 여성주의 강좌 후속 모임. 하나의 목소리만을 원하는 사회에 빼앗긴 눈길을 던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눈길을 주고받으며 '나의 페미니즘을 만들어 갑니다.'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2013년 봄 시민인문대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좌 후속 모임으로 시작해, 인문학 서적을 읽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독서나들이도 합니다.

영화수다

다큐멘터리 중심으로 상영하던 열린극장에서 시작해, 현재는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영화 상영과 삶에 대한 수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독오독

2015년 독서토론행사과정 이후 생킨 모임. 수업에서 배운 토론 방법을 활용합니다. 매달 선정한 작가의 저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눕니다. 책의 내용을 오도독 오도독 잘 소화해봅시다.

장독

2013년 11월 도요새책방 <살림 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함께 읽기로 시작해, 문학, 역사, 과학,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미술관, 도서관, 카페 탐방 등 야외활동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정다운우리

2013년 7월 <수원학부모 아카데미 리더십과정> 후속 모임으로 시작해, 다양한 인문 도서를 읽고 토론합니다. 연초에 1년 공부 커리큘럼을 세워서 모임을 진행하고, 매년 문집도 만들고 있습니다.

헤어졌니

2018년 <페미니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강좌 후속 모임. 핫한 페미니즘 이슈를, 지금 여기, 나의 삶과 연결지어 이야기 나눕니다.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위해 여성 구성원들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튜공

Youtube + You Too + 공부 합성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강연, 다큐멘터리 영상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커리큘럼을 만들어 사람들과 모여 함께 영상을 본 후, 이야기 나누고 소감을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2018년 여름에 시범도입 후 확대 운영 중입니다.

문학

글항아리 안다미로

여성학

여성주의 공부모임 눈길
헤어졌니

시사

시사클럽

동화

동화읽는어른

철학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니체와 별별이야기

영어

어린왕자

영화

영화수다

삶의 기술

쓸모

사회학

수요미식(味識)회

시

시집통째읽기

다양하게 읽기

장독, 정다운우리, 오독오독,
공부하는주부들 공주

유투공

미술
경제
글쓰기
심리
마을공동체
...

심리학

심리학 독서모임 마음밭

비폭력대화

기린 대화 기대

기다립니다

역사, 정치, 경제 ...



특색으로 보는 공부모임

현재 공부모임의 현황과
특색 별로 분류한 공부모임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高

최고(最高)의 모임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가장 오래 됐고,
구성원의 연령도
가장 높음

30

대

가장 젊은 모임

여성주의 공부모임 눈길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음

2

명

가장 적은 인원의 모임

시사클럽

구성원 2명이 1년 넘게
공부모임을 지속

19

개

현재 공부모임 수



1,077

회

공부모임 총 횟수



2,154

시간

공부모임 총 공부 시간



女

여성만 모이는 모임

헤어졌니

男

(여성 참여자 환영)

구성원이 전부 남자인 모임

시사클럽

無

한 주도 빠지지 않은 모임

영화수다

6,984

명

공부모임 총 참여 인원 수



164

명

현재 공부모임 실인원



4:1

(여성 : 남성)

공부모임 참여자 성비



★

특색있는 공부모임의 활동

글항아리 안다미로의 윗놀이

시집통째읽기의 포트럭파티

들길의 연말 송년회

New

신규 참여자가 많은 모임

영화수다

심리학독서모임 마음밭

시집통째읽기

外

학습관 밖에서 잘 모이는 모임

수요미식(味識)회



2013

- 7월 ●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 정다운우리
- 11월 ● 장독
- 어린왕자

2015

- 6월 ● 글향아리 안다미로
- 9월 ● 동화읽는어른
- 10월 ● 시집통째읽기
- 11월 ● 오독오독

2016

- 3월 ● 시사클럽
- 영화수다
- 7월 ● 여성주의 읽기모임 눈길

2017

- 1월 ● 니체와 별별이야기
- 3월 ● 공부하는 주부들 공주
- 심리학 읽기모임 마음밭
- 쓸모
- 6월 ● 수요미식(味識)회
- 11월 ● 기린 대화 기대

2018

- 7월 ● 유튜브공
- 9월 ● 헤어졌니

공부하는 주부들

공주

🕒 금요일 오전 10시



모임 소개

2017년 3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의 우리를 만들고 싶은 주부들이 모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박웅현 작가의 『책은 도끼다』를 처음으로 읽고 그 책에서 소개하는 양서들로 북리스트를 만들어 1년을 운영하였고, 2018년은 '공주' 멤버들의 추천도서로 목록을 만들어 순서대로 책도 읽고 관련 영화도 보고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야외로 나가 책에서 주는 지혜와 더불어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공부 방법

정해진 책을 각자 읽고 모임에 와서 울림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 어려운 철학책 등을 읽을 때엔 챕터를 나누어 발제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임 자랑

다양한 연령의 공주님들이 모여 심도 깊은 독서 토론을 합니다. 삶에 대한 가치나 태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알고 깨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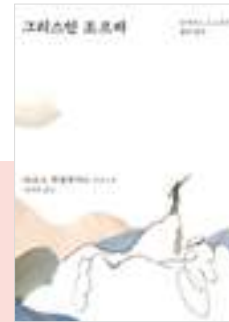


추천 책

우리의 독(讀)한 만남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조건의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각각의 책들이 그 개인 개인 마다의 일상에 빛처럼 스며들어 우리의 기진한 삶을 신비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가 만났었던 책들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울림이, 우리의 독한 향기가 주변에도 서서히 전해져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책 베스트 4입니다.



『책은 도끼다』
박웅현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 카잔차키스



『안나 카레리나』
톨스토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독(讀)한 책

<2017년>

- ① 박웅현 '책은 도끼다'
울림을 주는 양서를 찾아주었습니다.
- ② 최인훈 '광장'
각자의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 ③ 김훈 '자전거 여행'
기진한 삶의 신비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 ④ 알랭 드 보통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 ⑤ 고은 '순간의 꽃'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 그 꽃
- ⑥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viva la vida~!', '우리 인생이여 만세!'
- ⑦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니체의 회귀이론, 메타포의 의미 그리고 우연의 연속과 삶의 반복. 키치의 세계. Muss es Sein? Es muss sein! Es muss sein!
- ⑧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
불멸의 안나 카레리나 법칙
- ⑨ 법정 잠언집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행복한 삶, 밀도 있는 삶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 ⑩ 손철주 '그림 아는만큼 보인다'
해보자! 나만의 그림 큐레이션
- ⑪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다룬 영화 '프리다'
- ⑫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
- ⑬ 밀란 쿤데라 '커튼'
- ⑭ 광재구 '포구기행'
- ⑮ 김사인 '시를 어루만지며'
- ⑯ 톨스토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2018년 >

- ⑰ 괴테 '파우스트'
- ⑱ 황현산 '밤이 선생이다'
- ⑲ 아들러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
- ⑳ 은유 '싸울수록 투명해진다'
- ㉑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답게 살기, 사랑하고 놀고 연대하기.
- ㉒ 장 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도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
- ㉓ 최광현 '가족의 발견'
- ㉔ 한동일 '라틴어 수업'
Amore Fatti!

⑮ 손철주 '프레임'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생각의 전환. 나의 고정된 프레임을 바꾸면 나는 좀 더 행복해 질 수도 있다!

- ⑯ 이기주 '말의 품격'
말에도 인향이 있어 말하는 이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것.
- ㉑ 박웅현 '여덟 단어'
- ㉒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㉓ 정진홍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 ㉔ 김훈 '라면을 끓이며'
- ㉕ 공자 '논어'
- ㉖ 윤삼열 '레슨타임 스토리'
- ㉗ 김용택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 ㉘ 정재찬 '시를 잊은 그대에게'
시의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
- ㉙ 김수정 '그림은 마음에 남아'
인생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 ㉚ 장 루이 시아니 '휴가지에서 읽는 철학책'
- ㉛ 메리 앤 샤퍼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 ㉜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글항아리 안다미로

④ 화요일 1·3주 오전 10시



모임 소개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인문학교 2015년에, 문학평론가 고영직 선생님의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 강좌 후속모임으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10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회원으로는 필명 느티나무님(박종대)을 중심으로 김오종, 이경희, 박현자, 안수희, 박순옥, 신연정, 윤인아, 권미숙, 김수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합니다.

모임 자랑

- 숙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책을 다양하게 읽습니다. (문학, 고전, 과학)
- 느티나무님이 추천해주는 시읽기가 정말 좋습니다.
- 텍스트만이 아닌 정치,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수다타임도 있습니다.
- 우리 모임에는 귀여운 아기 수호가 있습니다.
- 1년에 2번 야외 나들이를 합니다.
- 설에는 윷놀이와 푸짐한 선물 증정!
- 웃겨야 하는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 만나도 편한 사람들!
- 상반기와 하반기 읽을 책을 선정해서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 필요하다면 영화도 봅니다.

추천 책



「쇼코의 미소」
최은영



「숨그네」
헤르타 뮐러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과학을 읽다」
정인경

「쇼코의 미소」 최은영

최은영의 「쇼코의 미소」는 내 젊은 날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 시절의 아련한 그리움과 미소가 떠올랐다. 그 기억은 참 따뜻하다. 어쩌면 쓸쓸하기도. 「쇼코의 미소」속에는 엄마와 딸의 관계, 여자 친구들의 관계,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 등 주요 여자들의 '관계'를 통해 차갑고 삭막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과, 그들 각자는 힘없고 약하고 여러지만 서로의 관계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일단 펴면 쪽 읽히는 힘이 있고, 단편들의 묶음인데도 몰입감이 좋아 단숨에 읽게 된다.

「숨그네」 헤르타 뮐러

작가는 수용소의 비참한 생을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매일의 일상을 담담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서도 문장의 표현은 아름답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다.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이 책을 재밌게 읽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책 제목처럼 작품들이 모두 알콜홀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또 하나는 술을 즐겨 마시는 작가가 맘에 든다. 특히 그의 말 중에 이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한 인터뷰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보통 그 정도 위치가 되면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고 누리고 싶어진다.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내'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곱 작품 모두 특별한 사건이 없는 일상이고 묘하게 짜놓은 우연 속에 내가 있다. 특히 '봄밤'의 남녀 주인공은 서로의 결핍을 사랑했다는 점에서 짱하다.

「과학을 읽다」 정인경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풀어 쓴 책이다. 개인적으로 과학으로의 징검다리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만약 글항아리를 통하지 않았다면 혼자 읽기 어려웠을 텐데 함께여서 더 의미가 깊었다.

읽은 책

<2018년 함께 읽은 책>

① 알제리의 유령들 ② 과학을 읽다 ③ 순이 삼촌 ④ 너무 한낮의 연애 ⑤ 편의점 인간 ⑥ 자유로부터의 도피 ⑦ 달콤한 노래 ⑧ 이상한 정상가족 ⑨ 82년생 김지영 ⑩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⑪ 쇼코의 미소 ⑫ 흐르는 편지

<2017년 함께 읽은 책>

① 꽃잎 ② 프랑스적인 삶 ③ 쓰기의 말들 ④ 마음 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⑥ 남해금산 ⑦ 속죄 ⑧ 덩샤오핑의 꿈 ⑨ 다른 남자 ⑩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⑪ 안녕 주정뱅이 ⑫ 세 여자 ⑬ 아무도 아닌 ⑭ 바깥은 여름

<2016년 함께 읽은 책>

① 어떻게 죽을 것인가 ② 숨그네 ③ 나쁜 페미니스트 ④ 그리스인 조르바 ⑤ 남한산성 ⑥ 바람이 분다, 가라 ⑦ 황금물고기 ⑧ 휴전 ⑨ 채식주의자 ⑩ 위건부두로 가는 길 ⑪ 사피엔스 ⑫ 이반일리치의 죽음 ⑬ 필경사 바틀비 ⑭ 전태일평전 ⑮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읽었던 애송 시 2016년부터 지금까지>

① 아픈다운 열차/신경림
② 제대로 된 혁명/D.H. 로런스
③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서정주
④ 가을에는/최영미
⑤ 아들에게/이성복
⑥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⑦ 나는야 세컨드/김경미
⑧ 20년 후에 지에게/최승자
⑨ 봄은 전쟁처럼/오세영
⑩ 낙화/이형기
⑪ 오월/피천득
⑫ 장마/안상학
⑬ 매미 울음 끝에/박재삼
⑭ 가을의 유서/파블로 네루다
⑮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고정희
⑯ 봄밤/김수영
⑰ 애국자가 없는 세상/권정생
⑱ 도취의 피안/김수영
⑳ 그 사람을 가졌는가/함석헌
㉑ 그림/신경림
㉒ 투포환 선수/문정희



기린 대화 기대

🕒 화요일 격주 오전 10시



모임 소개

2017년 11월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아이가 대화하고 싶어하는 부모 되기>강의 후속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비폭력 대화」 책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다가 「비폭력 대화 워크북」으로 비폭력 대화 연습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vc1(비폭력대화1) 강의를 다 같이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Nvc2(비폭력대화2) 강의도 같이 듣고 연습할 계획입니다.

공부 방법

영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워크북의 연습문제를 지정해 각자 준비해온 것을 한 명씩 돌아가며 의견을 나눕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오며 자신을 흔드는 일이 있었다면 공감 시간을 통해 공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임 자랑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도 나누며 공감,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의견을 수렴해 같이 산책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모임 원들로 폭넓게 다른 관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 구성원인 김순의 선생님의 정성 가득한 밥상 환대를 받기도 해서 마음도 몸도 따뜻해집니다.

추천 책



「비폭력 대화」
마셜 B.로젠버그

비폭력대화(NVC)의 기본 개념, NVC 모델, 모델 적용 과정 등을 자세히 다룬 기본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과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는 NVC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 워크북」
루시루

삶을 바꾸는 NVC의 생각과 언어를 익히는 연습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비폭력대화」를 한 장씩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워크북에는 삶 속에서 NVC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롭고 힘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출판사 책소개 인용)



니체와 별별이야기

🕒 목요일 격주 저녁 7시



모임 소개

2016년 11월,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인문학교 고병권 선생님의 <다이너마이트 니체> 강의 후속 모임으로 시작된 니체(와 별별 책들)읽기 모임입니다. 2017년 1월에 처음 모여 주 1회 모임을 해왔고 지금은 격주 목요일 7시에 만납니다. 자세한 모임 날짜는 인문사회공유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

정해진 책을 진도에 맞게 읽어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니체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니체를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니체를 '읽는' 모임이기에 어렵고 와 닿지 않는 부분은 스킵 지나가기도 하고, 자신의 삶과 맞닿는 부분이나 머리를 치는 구절들이 있으면 잠시 머물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모임 자랑

우리 모임의 자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회 마다 우리들이 입을 모아 했던 소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니체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읽지는 못하는 책.

혼자라면 책꽂이에 장식품이 되었을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모임의 큰 의미!

책을 읽어내는 '근력'에 힘을 실어 준다는 게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추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 니체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하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읽은 사람은 얼마 없는 책.
- 그러나 막상 읽어보면 문학책을 읽는 느낌이라 굳이 파고들지 않아도 유려한 문장에 책장이 비교적 잘 넘어가는 책.
- 그리고 무엇보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구절이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책.
- 곁에 두고두고 읽어도 좋을 책.
- 모임에서 가장 즐겁게 이야기 나누며 읽은 책!
- 모두에게 어려우니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읽어볼 수 있는 책!
- 해석의 여지가 많아 문학처럼 읽을 수 있는 책!

그 동안 읽은 책

- ① 다이너마이트 니체 (고병권, 천년의 상상)
- ②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민음사)
- ③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어빈 D. 알롬, 필로소픽)
- ④ 비극의 탄생 (프리드리히 니체, 아카넷)
- ⑤ 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 (구스타프 슈바브, 휴머니스트)
- 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프리드리히 니체, 동서)



동화읽는 어른

Ⓧ 화요일 2·4주 오전 10시



모임 소개

「동화읽는어른」 회보를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읽고 어린이문학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동화와 동시, 그림책, 인문사회 고전 등 다양한 책들을 읽고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

책을 읽고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눕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소개되는 책을 함께 읽기도 합니다.

모임 자랑

발제나 진행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깊이읽기와 폭넓게 읽기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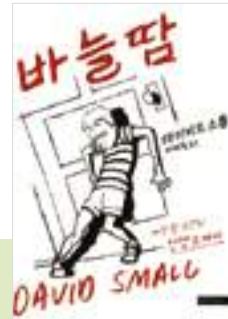


추천 책



「고백은 없다」
로버트 코마이어

최근에 함께 읽은 책으로 형식과 주제면에서 재미와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바늘땀」
데이비드 스몰

「도서관」, 「리디아의 정원」 그림작가 데이비드 스몰의 어린시절을 그린 자전적 그래픽노블 <바늘땀>을 추천합니다. 불우한 환경과 트라우마를 이겨낸 성장기 그 이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수요미식 (美識)회

🕒 수요일 저녁 7시



모임 소개

2017년 봄,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인문학교 문화학자 엄기호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자로> 강좌 후속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엄기호의 「공부공부」를 시작으로 전상인의 「편의점 사회학」과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를 함께 읽고,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부 방법

정치, 사회, 문화 관련 강의도 함께 듣고 책을 정해 이야기 나누고 필요하면 영화관도 함께 갑니다.

모임 자랑

구성원의 집이나 일터로 초대해서 모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고 있습니다.



추천 책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사람과 장소와 환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세 달에 걸쳐 읽으며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사 클럽

Ⓛ 월요일 저녁 6시



모임 소개

시사클럽은 2016년 3월에 시사인, 녹색평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등 사회간행물을 읽는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구성원들이 사회의 핫한 이슈를 매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부터 60대 퇴직자까지 다양한 연령과 구성원이 함께 한 적이 있고 현재는 50대 남성 셋이 매주 시사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

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구성원들이 온라인 모임 공간(단체 카톡방 사용)에 두세개 올려서 함께 정합니다. 각자 그 주제에 대해 뉴스, 기사 등을 보고 와서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매주 시사 주제는 그 때 그 때 정함으로서 가장 핫한 사회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모임 자랑

모임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해 마스크이나 SNS 등에 휘둘리지 않고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자랑 하나 더, 친구나 가족과도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나누기 쉽지 않고 자칫 말싸움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추천 책



「뇌의 거짓말」
마이클 캐플런 & 엘런 캐플런

시사클럽에서는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찬성, 반대 등의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때에는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제대로 된 판단에 다가가기 위해 도움을 주는 책이라 추천합니다.

토론 주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묘약인가?
- 광주시 현대자동차 공장 설립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강서구 PC방 살인용의자 김성수의 심신미약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법 권력남용 등에 대한 수사방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병역특례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 향후 바람직한 대학의 존재방향은?
-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 간의 평가는?
- 남북미간 비핵화와 종전선언, 무엇이 먼저인가?
- 노회찬 의원 죽음을 보고 느낀 점?
-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주도에 온 예멘난민 500여명의 난민 신청 수용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안!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복지수당 일부를 포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미투운동의 부작용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전개방향은?
- 국가의 존재이유는?
-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타당한가?

시집 통째읽기

☉ 수요일 1·3주 오전 10시



모임 소개

시집 통째 읽기(가칭 시통) 이름 그대로 시집 한권을 선정 하여 골라 읽지 않고 한권 통째로 읽는 모임입니다. 시통 모임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양만호 신부님으로부터 출발 하였으며 올해 3주년이 되었습니다. 모임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학습관 고고장에서 합니다. 때론 야외 수업도 합니다. 양만호 신부님과 40대부터 60대까지 여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 방법

신부님께서 시집을 선정하면 돌아가며 시를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거나 되새김질 하며 느낌을 이야기 합니다.

모임 자랑

우리 모임은 빈 몸, 빈 마음, 가벼운 발걸음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헌책방이나 작은 카페로 나들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차에 몸을 맡기고 두어 시간 훌쩍 소풍을 다녀오기도 하는 훈훈한 모임입니다.



추천 책



「시의길을여는새벽별하나」
김상욱



「김수영 전집 2- 산문」
이영준 엮음



「짧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 말들의 풍경」
김현



「어린나무의 눈을 털어준다」
올라브 하우게

시란 무엇일까, 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친절한 갈잡이 역할을 해 줍니다.

그의 산문은 그의 시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의 시만큼 어렵지 않으면서, 그의 산문은 그의 시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비평이 어떻게 시에 근접할 수 있는지, 비평이 때로 시보다 더 시 같은지 보여줍니다.

노르웨이의 농부 시인 올라브 하우게는 여유로운 정서를 보여줍니다. 시가 담백하고, 삶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

- ① 이문재— 지금 여기가 맨 앞
- ② 신경림— 사진관집 이층
- ③ 김태동— 청춘
- ④ 황동규— 사는 기쁨
- ⑤ 문태준—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 ⑥ 마중기— 이슬의 눈
- ⑦ 조은— 따뜻한 흙
- ⑧ 엘뤼아르— 이곳에 살기 위하여
- ⑨ 윤종길— 고향 길
- ⑩ 박용래— 먼 바다
- ⑪ 천이즈— 옷 안에 사는 여자
- ⑫ 김경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 ⑬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하는가
- ⑭ 이성복— 남해금산
- ⑮ 네루다— 질문의 책
- ⑯ 정현중— 나는 별아저씨
- ⑰ 김사인— 가만히 좋아하는
- ⑱ 이재무— 슬픔은 어깨로 운다
- ⑲ 브레이트— 살아남은 자의 슬픔
- ⑳ 윤건차— 겨울 숲
- ㉑ 장석남— 새떼들의게로의 망명
- ㉒ 올라브하우게—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준다
- ㉓ 사이토마리코— 단 하나의 눈송이
- ㉔ 황인숙— 못다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 ㉕ 유하— 세상의 모든 저녁

추천 시

이문재 「지금 여기가 맨앞」

우리가 읽었던 시집 중 가장 애정 하는 책
내게 자주자주 찾아오는 물음
나는 무엇일까? 에 대한 해답서 같은 책
지금 여기 내가 정답이다!

나의 시통

향숙 시집한권을 차례차례 통째로 읽어간다
어떤 시는 쿵한 떨림으로 쓰옥 읽히기도 하지만
구부린 언어들은 한참을 에둘게 한다
언어 뒤편에 있는 시인의 행간을 같이
찾아내며 가능해보기도,
답이란 있는 걸까
그럼에도 시에게 즐거이 악수를 청하며
나의 일상이 좀 더 따뜻해지길,
풍성해지길, 진지해지길



박은숙 시통으로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해요. 마음을 무장 해제 시키고, 다가가도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오래오래 아껴가며 만나고 싶어요.



서희 시집 통째로 읽기는 혼자서 눈으로만 읽는
시에서 함께 돌아가며 읽는 눈과 귀로 보고 들
는 시로, 또 다르게 마음에 스며들죠. 시인의 마
음 가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든지 한없이 가
기도 하고, 때론 멈춰서기도 하지만, 함께 공감
하고 느끼는 시 읽기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
이예요.

심리학 독서모임 마음밭

🕒 목요일 오전 10시



모임 소개

2017년 4월 부모교육 강좌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때 부모교육 강좌에 참가했던 3명이 후속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 이름이 '여성심리학 책읽기 모임'이었는데, 1년 후 심리학 독서모임 '마음밭'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초창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밭'에서는 여성의 심리와 관련된 책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임이 진행되면서 인원이 추가되어 현재는 평균 3~5명이 출석하고 있고, 주 연령대는 40대~50대 여성입니다.

공부 방법

공부 할 책을 연간계획표로 만들어 차근차근 읽고 있습니다. 주제를 7개로 나누어 연간계획을 짭니다. 7개의 주제는 역할, 감정, 자녀, 소통, 관계, 행복, 삶입니다. 주제에 알맞은 일반책과 그림책을 겨 주로 번갈아 읽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림책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2주에 한권, 한 달에 2권 정도의 일반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주제를 2~3달 정도에 걸쳐 진행합니다. 모임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의 느낌 말하기. (모두 다 돌아가며 말하기)
2. 자신의 읽은 책 중 필사한 부분 읽고 어째서 그 부분을 필사했는지 이유를 말하기.
또는 필사한 내용을 볼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말하기.
3.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하기.
4. 마지막으로 오늘 활동 후 소감을 말하기.

모임 자랑

일년 동안 읽을 책이 정해져 있어서 좋습니다.

책을 읽고 통찰한 것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책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그와 연관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주어서 치유가 됩니다.

봄에 경기도립미술관 옆 <지앤아트 스페이스>에 소풍을 갔습니다. <지앤아트 스페이스>에서 이쁜 꽃, 식물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테라스에 앉아서 따뜻한 햇빛을 쬐며 사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가을에는 행궁동 벽화골목에 있는 <대안 공간 눈>에서 미술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 봄 눈카페에서 아가지기한 분위기를 음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으면 회원들과 함께 움직일 예정입니다.

읽은 책 중 감동 깊었던 책을 모사하자고 회원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모사를 하기 위해 책 속 인물을 자세히 관찰하였고 그러다보니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애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책만 읽고 끝내지 말고 가끔은 모사를 하거나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사나 영화를 보면 우리의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향상되고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 책



「나의 엄마」
강경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엄마를 만나고 그 사랑을 받아 다시 엄마가 되는 과정, 그 삶의 사이클에서 애뜻하고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읽은 책



① 돼지책

전업주부지만 밤늦게까지 쉬틈없이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책이 기억에 남았다. 가족의 역할분담은 지금을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숙제인 것 같다. 그 숙제가 잘 되어지길 희망하며 그림을 그렸다.



② 리디아의 정원

처음보는 무뚝뚝한 외삼촌에게 맡겨지는 리디아는 놀랍도록 긍정적이다. 리디아가 돌아갈 때 외삼촌은 리디아를 꼭 안아주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외삼촌네 쓰레기 더미 옥상을 멋진 정원으로 가꾸어낸 리디아처럼 내 마음속의 정원을 소중히 가꾸고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



③ 기분을 말해봐

다양한 상황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을 통해 잘 알려준다. 아이들이 다양한 감정과 기분을 이해할 수 있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④ 행복한 청소부

평범한 일상속에서 문득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된 청소부 아저씨. 아저씨는 강연을 하며 유명해지지만 “강연은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말하며 청소부 일을 놓지 않는다. 청소부 아저씨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볼 수 있다.



⑤ 착한 아이 사탕이

착한 아이 사탕이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았다. 주위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던 사탕이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이 책은 우리가 욕구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충실할 때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운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쓸모

① 목요일 격주 저녁 7시 30분



모임 소개

내 삶에서 쓸모를 만들기 위한 삶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쓸모 없음'이 '쓸모 있음'을, 내 삶에 필요한 나의 쓸모를 찾는, 다양한 생각과 실천 앎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과 연결되고 다양한 생각과 대화 안에서 통찰을 얻고, 삶이 자신의 삶의 기술이 되도록 실천을 모색합니다. 2017년 3월부터 격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임을 가집니다.

공부 방법

Open Table

[자유 대화] 자신의 관점으로 본 텍스트의 이해, 감상과 소감 그리고 의견을 나눕니다.

[질문이 있는 대화] 텍스트와 삶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질문을 모으고 주제를 선정합니다.

Together

'테이블 리더'와 함께 합니다. 테이블 리더는 참여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참여하도록 말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자들'은 작고 소박한 역할이 있습니다. 대화에 좀 더 집중하고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추천 책



「인생학교 '일」
로먼 크르즈나릭

나의 쓸모를 위한 '일'에 대한 생각을 만드는 책입니다. 만족감과 의미를 찾고 몰입하는 가운데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읽은 책

- ① 트렌드 코리아 2017 - 김난도 외
- ② 그릿 - 앤젤라 더크워스
- ③ 인생학교 일 - 로먼 크르즈나릭
- ④ 트렌드 코리아 2018 - 김난도 외
- ⑤ 넛지 - 리처드 H. 탈러, 캐스 R. 선스타인

본 다큐멘터리

- ① 자본주의 5부작 - EBS
- ② 민주주의 5부작 - EBS

우리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해요

- 다양한 생각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친구
- 다름을 좋음으로 느끼는 친구
- 대화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
-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싶은 친구
- '일'에 대한 고민과 방황으로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친구
- 행복한 삶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

어린 왕자

🕒 화요일 저녁 7시



모임 소개

2012년에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영어독서관련 강의에 참석 한 수강생 5명이영어독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 후 첫 번째 읽은 책 생텍쥐베리의「어린왕자」를 읽으며 모임 이름을 어린왕자로 지었고, 지금은 7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공부 방법

영어 원서를 읽는 모임이다 보니 하루에 10쪽 정도를 읽습니다. 회원들이 미리 공부를 해와서 자유롭게 읽고 해석하며 함께 의견도 나눕니다. 영어공부와 독서를 하고 싶은 분은 언제나 우리 모임을 노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임 자랑

- 첫째, 회원 모두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 둘째, 영어 공부와 독서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일 년에 두 차례 정도 워크숍도 합니다.



추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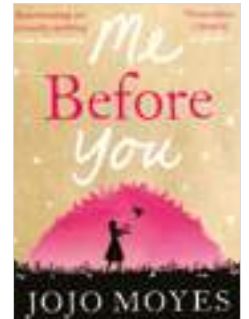


「The Hundred-Year-Old Man Who Climbed Out Of The Window And Disappeared」
Jonas Jonasson

무서울 것 없이 유쾌하고 재밌는 세상을 살아가는 알란의 100년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모임은 이 도서를 2년 가까이 읽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는 페이지 분량도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이유는 주인공의 100년간의 인생을 통하여 세계의 근현대사에 굵직한 사건들을 영어로 번역하며 이해해야만 진도를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100년의 인생 만큼이나 긴 독서기간을 거치며 지루해 하기도 하고 이 책을 추천한 회원에게 원망아닌 원망도 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다른 책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건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고, 주인공의 삶에 흠뻑 빠져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읽은 책

- ① The Little Prince, Antoine de Saint Exupery
- ② The Giver, Lois Lowry
- ③ Wuthering Heights, Emily Bronte
- ④ The Hundred-Year-Oldman Who Climed Out Of The Window And Disappeared, Jonas Jonasson
- ⑤ Chicken Soup For The Teenage Soul, Jack Canfield, Mark Victor Hansen
- ⑥ Me Before You, Jojo Moyes



여성주의 공부모임

눈길

① 월요일 저녁 7시



모임 소개

2016년 가을 여성주의 강좌 후속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눈길'은 눈으로 보는 방향입니다. 주의나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의 목소리만을 원하는 사회에 뼈뚫한 눈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눈길을 주고 받으며 '나의 페미니즘'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7시에 페미니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매월 1회 관련 영화를 같이 감상합니다.

공부 방법

책을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같이 봅니다.

모임 자랑

자유롭게 원하는 책과 영화를 정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모임! 편하게 책과 영화를 읽어오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며 세상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 좋습니다.



추천 책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엮음

페미니즘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사상이 아니라 강간과 섹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강간 문화를 드러내는 것임을, 그리고 성폭력이 '누구' 혹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문제임을 밝혀주고 있어서 추천합니다.



「유럽낙태여행」
봄알람

읽기도 쉽고 읽다보면 여행가고 싶어지는 책. 유럽 활동가들의 인터뷰들을 읽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지 보이는 것 같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연대의 힘이 생깁니다.



「주디스버틀러, 젠더트러블」
조현준

페미니즘을 넘어서 성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인간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에 추천합니다.

영화 수다

🕒 토요일 오후 2시



모임 소개

현실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입니다.

공부 방법

영화를 보고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눕니다.

모임 자랑

책을 읽고 와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와도 됩니다. 컨디션에 따라 영화만 보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자유로운 모임입니다.



추천 책



「영화읽어주는 인문학」
안용태

영화를 통해 인문학을 읽어 내려가며 우리 사회에 얽혀 있는 불안, 아픔, 무기력 등을 풀어냅니다. 영화를 통해 나와 사회를 생각해본다는 영화수다 취지와 잘 맞아 추천합니다.

추천 영화



「타인의 삶 (2006)」
플로리안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영화를 보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수다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영화만 보고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삶>은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갈 때 까지도 사람들이 자리를 지켰고 이후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둥글게 모여 앉아 영화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최고의 영화로 선정했습니다.

2018 함께 본 영화

- ① 그랜 토리노(2008) / 클린트 이스트우드
- ② 나, 다니엘 브레이크(2016) / 켄 로치
- ③ 문라이트(2016) / 배리 젠킨스
- ④ 스틸 라이프(2006) / 지아 장 커
- ⑤ 아무르(2012) / 미카엘 하네케
- ⑥ 인생은 아름다워(1997) / 로베르토 베니니
- ⑦ 이다(2013) / 파벨 포리코브스키
- ⑧ 잡식 가족의 딜레마(2016) / 황운
- ⑨ 제8요일(1996) / 자코 반 도마엘
- ⑩ 패터슨 (2016) / 짐 자무쉬

오독 오독

④ 수요일 2·4주 오전 10시



모임 소개

2015년 가을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독서토론진행자과정 이후 생긴 후속 모임입니다. 매 달 선정한 작가의 저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눕니다. 책의 내용을 오도독 오도독 잘 소화해보자, 책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오해해서 읽어도 좋다, 낮에 모여서 책을 읽자 등의 중의적 의미로 오독오독이라는 모임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공부 방법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에서 익힌 진행자의 리더십, 도서 선정 및 진행 노하우, 논제 발제 등을 활용합니다. 책과 발제자를 정해서 토론을 합니다.

추천 책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혀 다른 두 인간의 성장과 우정. 조르바의 자유. 조르바는 우리에게 삶을 사랑하는 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읽은 책

- ① 행복한 청소부
- ② 달과 6펜스
- ③ 세상물정의 사회학
- ④ 기획된 가족
- ⑤ 허삼관 매혈기
- ⑥ 동물농장
- ⑦ 그리스인 조르바
- ⑧ 자기결정
- ⑨ 꿈 꿀 권리
- ⑩ 댓글부대
- ⑪ 한국이 싫어서
- ⑫ 유혹하는 글쓰기
- ⑬ 글쓰기의 최전선
- ⑭ 물에 쓴 글씨
- ⑮ 소년이 온다
- ⑯ 채식주의자
- ⑰ 노르웨이 숲
- ⑱ 달리기를 말할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 ⑲ 멋진 신세계
- ⑳ 기억전달자
- ㉑ 생의 수레바퀴
- ㉒ 인생수업
- ㉓ 도련님
- 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 ㉕ 몽테뉴의 수상록
- ㉖ 호밀밭의 파수꾼
- ㉗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 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 ㉙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㉚ 커튼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 금요일 격주 저녁 7시



모임 소개

2013년 8월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인문대학 철학 강좌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듣고, 그해 여름에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읽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인문학 서적을 읽어 나갔으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슬로우 리딩으로 천천히 책을 곱씹어 읽어가며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카뮈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다든지, 정기적인 야외나들이를 통해 <문학작품을 함께 하는 미술관 나들이> 등 다양한 방식의 모임이 이어 나갔습니다.

연말에는 적당한 장소를 빌려서 많은 회원(전체 회원 수 45명 내외)들이 모여서 그간 읽었던 책에 대한 소회와 그간 미처 질문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는 송년회를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년간 읽을 책을 미리 선정하여 차례대로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와 「도덕의 계보」를 읽고 있으며, 내년에는 「장자」를 통독할 예정입니다.

공부 방법

선정된 책을 단원별로 약 20~30쪽 정도를 읽고 요약해 와서 발제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서적 특히 서양철학 서적을 1년에 약 한 권이나 두 권의 책을 읽고, 문학 서적은 4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모임 자랑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서동은교수님을 멘토로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선정된 책의 저자나 전공교수를 초빙하여, 토론 가운데 생긴 의문점을 최대한 알아가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책



「침묵의 세계」
막스 피카르트

대부분의 책들이 명료하게 표현하고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측면이 인상 깊어 추천합니다.

읽은 책

- ① 「피로사회」 한병철
- ② 「자유론」 존스튜어트 밀
- ③ 「자유로부터 도피」 에리히 프롬
- ④ 「역사를 위한 변명」 마르크 브로크
- ⑤ 「이방인」 알베르 카뮈
- ⑥ 「페스트」 알베르 카뮈
- ⑦ 「시지프스의 신화」 알베르 카뮈
- ⑧ 「인간이란 무엇인가」 카시러
- ⑨ 「노자와 용」 이부영
- ⑩ 「감시와 처벌」 푸코
- ⑪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
- ⑫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 ⑬ 「이 사람을 보라」 니체
- 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 ⑮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
- ⑯ 「도덕의 계보」 니체
- ⑰ 「존재와 시간」 마르틴 하이데거
- ⑱ 「노자」 노자

장독

④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모임 소개

장독은 무언가를 담아 숙성시키는 곳이자 독 주변과 상호작용하며 숨 쉬는 그릇입니다. 장이 숙성되는 것처럼 책을 함께 읽어와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듯이 장독과 함께 하는 시간이 모두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독은 2013년 <임소희 북텔러와 함께 하는 살림살이 경제학>의 후속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문 강연자는 아니었지만, 자료를 가져와 북텔러가 설명하고 모임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책 「살림살이 경제학」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도 강의를 했던 흥기빈 경제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책 이야기 나눌 때에는 10명 정도가 참여했었고 첫 날 국민일보 기자가 취재 왔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날 책모임 끝나고 남은 4명과 북텔러가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후속 모임을 해 보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 때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가 장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부 방법

만 5년 동안 평균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회, 역사, 소설, 경제, 시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모임 자랑

장독에서는 일 년에 두 세 번은 야외모임을 가집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 북촌및 서울 성곽길, 현대미술관, 정릉 교수단지 정원박람회, DDP미술관, 김연수 작가와 함께 하는 시화호 라이딩, 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장소에 함께 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템플 스테이 계획이 있습니다. 장독 샘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모두에게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책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곳 저곳을 함께 걷는 행운이 고마울 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전 권을 읽었습니다. 서태성 장독샘이 텃밭을 분양받아 장독샘들이 함께 상추, 토마토, 부추 등을 심었습니다. 토지를 읽고 텃밭을 가꾸는 시간은 책과 삶이 일치한다는 느낌에 뿌듯했습니다.

장독은 매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1시 반 까지입니다. 어떤 날은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부터 시낭송과 책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낭송 18세기 소품문>을 두 세편씩 낭송하고 미리 정한 책을 읽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2018년 1월까지 <낭송 18세기 소품문>을 두 번 돌아 낭송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는 <한국의 시>를 낭송하고 책이야기를 나눕니다. 장독샘들과 함께 하는 시낭송 시간은 모두에게 위안을 줍니다.

추천 책



「토지」
박경리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들었을 법한 토지이지만, 완주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라면 오래 걸리고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장독에서 읽은 토지 전권 읽기는 함께라서 가능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에는 35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씨 집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30명이 되는 인물은 소설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누구하나 이해하지 못할 인물도 누구하나 미워할 인물도 없습니다. 흔들리지만 뺨치지 않는 갈대처럼 때론 잡초같이 열심히 자기의 생을 살아냅니다. 원한도 있고 복수도 있으나, 한 명 한 명의 생명력은 비교 불가였습니다. 위인전이나 인명사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두가 그 시대를 관통해간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토지에서 알았습니다.



「단속사회」
엄기호

관계가 단절된 개인과 사회의
속살을 섬세하게 드러냈습니다.



「쌍전」
류짜이푸

권모술수의 백과사전 삼국지와 폭력을 숭배하는
수호전, 두 이야기와 그 속의 가치관들이 현대에
이르러 얼마나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날날이 해부한 책입니다.

나에게 '장독'이란?

- 순옥** 나에게 장독은 허파다. 살 수 있는 산소를 주고 나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 운영** 나의 시간은 장독을 나가기 전과 후로 나뉜다.
- 태성** 나에게 장독이란 사랑과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다.
- 수림** 나에게 장독은 언제나 5월이다. 축제의 달 5월처럼 늘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 문숙** 나에게 장독은 나침반이다. 살아가며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릴 때 방향을 잡아주고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 주기 때문에.
- 명애** 나에게 장독이란 샘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소다.



정다운 우리

🕒 수요일 1·3주 오전 10시



모임 소개

“우리는 노란 한 권의 책<2013수원학부모아카데미 리더십과정>으로 시작,
한 배를 타고 끝도 없는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다운 우리 첫 번째 문집, 첫 페이지에 실린 글귀입니다. 우리는 학부모로 처음 만났고, 학부모로서 교육과 사회에 대한 질문을 안고 '정다운 우리'호에 함께 올랐습니다. 2013년 7월 24일 「더 리더: 책 읽어 주는 남자」를 시작으로 5년 넘는 기간 동안 118번째 책 「생의 한 가운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며 삶이란, 사회란, 나란 사람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가치와 의미란, 정의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건강한 개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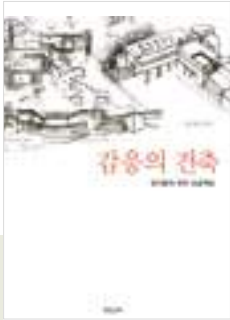
공부 방법

연말에 각자 세 권의 책을 추천해서, 1년간의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다양한 인문도서를 읽고 토론합니다. 책을 각자 읽고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임 자랑

2013년 7월 수원 학부모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후속 모임으로 시작해 다양한 인문도서를 읽고 토론합니다. 1년 공부 계획을 세워서 1, 3, 5주차 수요일 10시-12시까지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매년 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다섯 번째 문집이 나왔습니다.

추천 책



「감응의 건축」
정기용

건축가가 가진 세상에 대한 눈과 철학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응의 건축」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추천합니다.



「리스본행 야간열차」
파스칼 메르시어

우연으로 시작된 리스본으로의 기차여행이 그레고리우스의 인생에 가져온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긴 힘들지만 살며시 새로운 일탈을 꿈꾸게 됩니다. (정은경)

어머니 생전에 하지 못한 엄마에 대한 분노를 편지에 마음껏 표출하는 그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충분히 표현할수 있다면 내가 좀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임진옥)

우리는 많은 경험 가운데 기껏해야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이 지닌 세심함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책은 경험에 관한 책입니다. (강지영)

정다운우리 5행시

정말 몰랐어요
다함께 독서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운명과도 같이 내 삶을 바꿀줄은
우리 지금처럼
리(이) 마음 영원히 변치 말아요



헤어졌니

🕒 금요일 오전 10시



모임 소개

2018년 10월 이민경 작가의 페미니즘 강연 후 후속 모임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여성 구성원들과 함께 여성 작가의 책을 읽습니다.

공부 방법

아직 모임 초반이라 집중적인 독서토론 보다는 주간 여성 이슈 논의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이야기가 오가는 모임입니다.

모임 자랑

신규 모임이기에 합류하기 좋습니다.
여성만 참여 가능하기에 좀 더 진솔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분위기!
'헤어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로 가득한 모임!
시간 위주로 읽고 최근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도 빠르게 반응하는 새내기 그룹입니다!

추천 책



「꿈을 그리는 여자들」
일러스트 위인전

다양한 국적으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여성 인물의 삶을 그림으로 만납니다. 각자가 처한 시대적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고 꿈을 그렸던 여성 한 명 한 명을, 20인의 한국 여성 작가가 다채롭게 재해석해 그렸습니다.



「뒤에 올 여성들에게」
마이라 스트로버

평생 노동의 관점에서 성차별과 싸워온 학자 마이라 스트로버의 삶이 담긴 책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분투해온 삶을 이야기합니다. 암묵적인 차별의 벽을 견디며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영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유투공

🕒 **금요일 오전 10시**



모임 소개

시민이 만드는 인문학습지도, 유투공

유투공은 Youtube + You Too + 공부를 합성한 말로, 시민들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강연 및 다큐멘터리 영상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어 사람들과 모여 함께 영상을 본 후, 이야기 나누고 소감을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공부 방법

진행 방식

1. 참가자들이 모여 주제와 관련한 강연, 다큐 등의 영상을 함께 봅니다.
2. 영상을 본 후 참가자들과 소감을 나누고 토론합니다.
3. 소감 및 토론 후기를 작성해서 공유합니다.
4. [1~3]을 반복하면서 전체 과정을 마친 후 심화과정을 위한 후속모임을 만들거나 기존 공부모임에 참여합니다. 심화단계의 학습을 위해 시민인문학교 내 강좌 편성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강연, 다큐 등
주제와 관련된
영상보기
(30-60분)

영상 시청 후
함께 이야기
나누기
(40분~60분)

공부 후기 작성
(10분-20분)

후속 학습모임 구성,
공부모임 합류 등
심화학습 진행

모임 자랑

1. 강연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함께 모여서 보고 이야기 나누는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혼자라면 영상을 보다가 중지할 수도 있고 다 본다고 해도 듣는 학습에서 그칠 수 있는데, 함께 보기에 끝까지 볼 수 있고 보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기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다른 이들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2. 토론 이후에는 소감을 그 자리에서 적기에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듣고, 말하고, 쓰는 공부가 연결되어 몸에 기억되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3. 주어진 커리큘럼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강연,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고 계열화해서 각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에 관심 있는 동네 벗을 만날 수 있습니다.
4. 유튜브 교육 과정과 활동 사례는 온라인상에 기록되어 관심 있는 사람은 공부에 참고할 수 있어서 유튜브 공부는 그 자체로 공유되고 공헌하는 일입니다.

커리큘럼

2018년 여름, 가을에 진행 된 커리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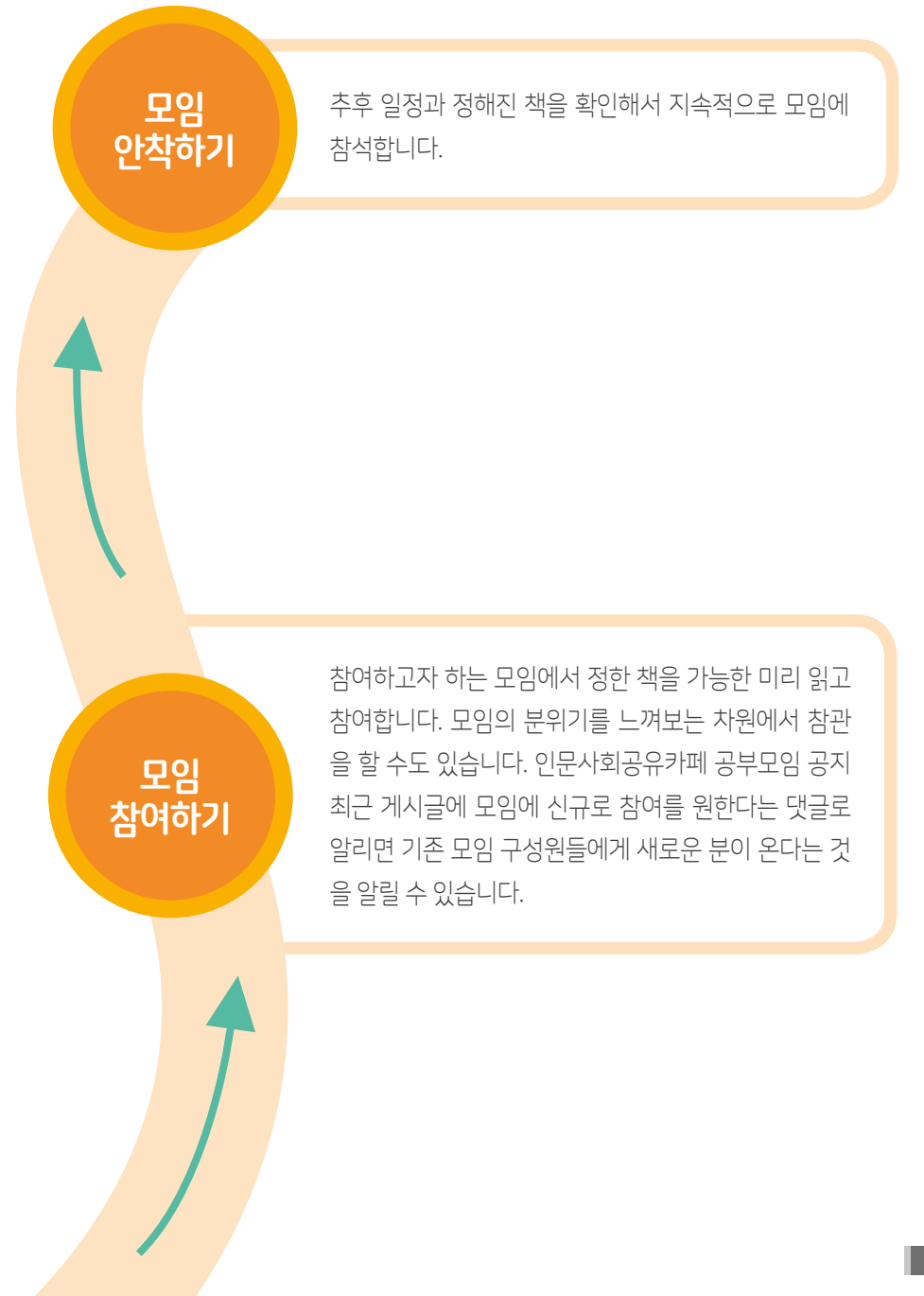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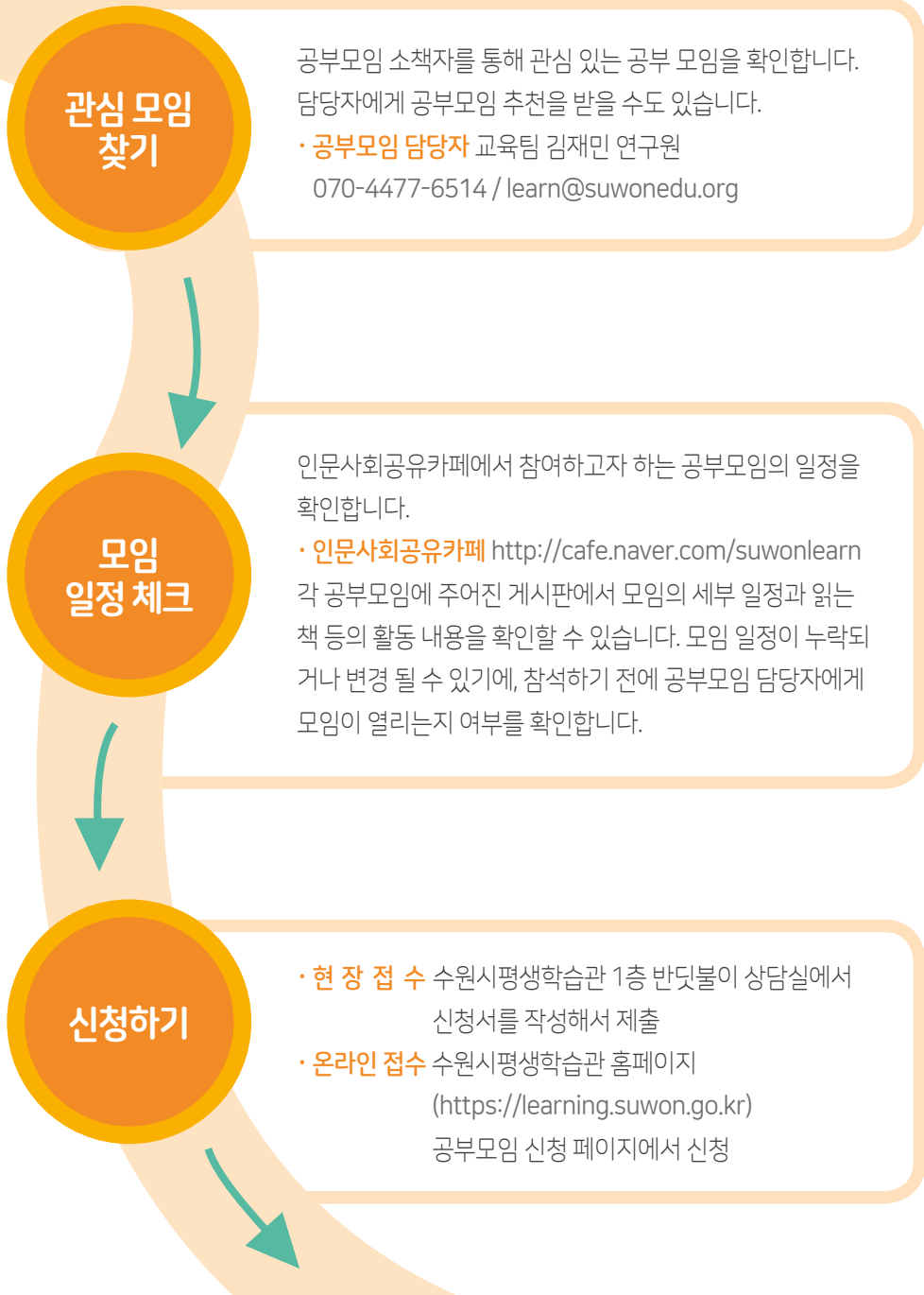
- <인문학 들어가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 <과학과 친해지기: 로봇, 인공지능, 인간의 미래>
- <미투? 성평등? 열려라 여성주의!>
- <글쓰기 입문: 왜 쓰는가>
- <경제를 보는 눈>

2019년 겨울학기 예정

- <행복 심리학>
- <미술과 친해지기>
-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아남기>
- <매주 한 줄이라도 글을 써요>
-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1·3주 10:00 글항아리 안다미로	1·3주 10:00 시집통째읽기	10:00 심리학 독서모임 마음밭	10:00 공부하는 주부들 공주	
		2·4주 10:00 동화읽는어른	1·3주 10:00 정다운우리		10:00 헤어졌니	
		격주 10:00 기린 대화 기대	2·4주 10:00 오독오독		10:00 유투공	10:30 장독
오후						2:00 영화수다
저녁	6:00 시사클럽			격주 7:00 니체와 별별이야기	격주 7:00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7:00 여성주의 공부모임 눈길	7:00 어린왕자	7:00 수요미식(味識)회	격주 7:30 쓸모		



신규 공부모임 개설 신청 작성하기

인문사회공유카페 (<http://cafe.naver.com/suwonlearn>)
공부모임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공부모임 담당자 교육팀 김재민 연구원
070-4477-6514 / learn@suwonedu.org

공부모임 홍보 및 모집

수원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홍보 전단지과 홈페이지 등에
신규 공부모임을 홍보합니다.

첫 모임 시작

5인 이상 모집 되면 일정을 정해 담당자와 함께 첫 모임을 합니
다. 모임 참여 계기, 관심사 공유, 공부모임 안내, 공부 주제, 모임
일정, 공부 방법 등의 향후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모임개설 기준

-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좌 후속 모임의 경우
- 1인 강사 중심이 아닌 경우
- 상업적 목적을 지니지 않은 경우
- 종교, 이익집단과 같은 특정 단체나 행사 목적의 모임이 아닌 경우

공부모임 안내 사항

- 공부모임은 열려있는 형태로 신규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 모임 전과 후에 활동내용을 주기적으로 인문사회공유카페에 공지합니다.
- 1년에 1회씩 진행되는 간담회 및 활동 공유회 파티에 모임원들은 적극 참여합니다.
- 공부모임은 고고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학습관 행사나 일정이 있을 시에는
다른 공간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학습관 프로그램 우선 배치)

수원시평생학습관
공부모임

퍼낸곳 수원시평생학습관

퍼낸날 2018년 12월

퍼낸이 정성원

글쓴이 공부하는 주부들 공주, 글항아리 안다미로, 기린 대화 기대, 니체와 별별이야기, 동화읽는 어른, 수요미식(味識)회, 쓸모, 시사클럽, 시집통째읽기, 심리학 독서모임 마음밭, 어린왕자, 여성주의 공부모임 눈길, 영화수다, 오독오독,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장독, 정다운우리, 헤어졌니, 유튜브공

엮은이 수원시평생학습관 김재민 연구원

디자인 단호리

(1623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Tel 031-248-9700

Fax 031-248-9902

Homepage learning.suwon.go.kr

Webzine wasuwon.net

Facebook @suwonedu

공부하는 주부들 공주

글항아리 안다미로

기린 대화 기대

니체와 별별이야기

동화읽는어른

수요미식(味識)회

쓸모

시사클럽

시집통째읽기

심리학 독서모임 마음밭

어린왕자

여성주의 공부모임 눈길

영화수다

오독오독

인문학 독서모임 들길

장독

정다운우리

헤어졌니

그리고 유튜브공